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2년도 표어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행동지침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이웃돕기와 헌당을 위한 2002 열린바자

10월9일(수) - 10월11일(금)까지 3일간

이웃돕기와 헌당을 목표로 개최되는 2002 열린바자가 9일(수) 수요일 1부 예배를 마친 후 12시에 이중윤 목사의 인도 아래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 교회는 바자를 위해 교회앞 마당과 1층 로비를 판매 장소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8층 만나 홀은 바자 기간 중에 개방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비로 준비된 각종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바자준비위원회의 자료에 따른 금번 바자를 위해 각 교구에서 판매하기로 한 품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판매 품목	구분	판매 품목
1교구	꽃, 화분, 운동상품, 머리액세서리, 애경치약, 비누, 세제, 정수기, 건강세리믹, 해물전, 묵	8교구	참기름, 들기름, 피자기름, 고추맛기름, 조미료, 젓갈류, 반찬류, 오징, 떡볶이
2교구	화장지, 여성 속옷, 밑반찬류, 잡곡	9교구	사골, 들깨가루, 양복티켓, 숙녀복, 도토리 가루, 오징어채무침
3교구	녹두빈대떡, 북어찜, 선식, 옥메트, 양말, 외제지동차(벤, 재규어 랜드로바 등)	10교구	멸치, 영양고추, 밑반찬(두우, 찌릿, 더덕), 수입가전제품, 배추김치, 가방, 각종 젓갈류
4교구	진주제품(목걸이, 귀걸이 등), 김포쌀, 예천참기름, 깨소금, 밤꿀, 삼푸, 린스, 스프레이, 신발	11교구	커피, 순대, 숙녀용 구두, 생활용품
5교구	바이오 속옷, 니트, 무릎보호대, 파스, 숙녀복, 육가공품(마니커), 매직크리너, 감식초	12교구	사과, 애플파이, 여성이류, 건강식품, 혼합잡곡, 포도, 책, 도토리묵, 프라이팬, 올리브유, 구운김
6교구	애플파이, 한국도자기, 만두, 집화(옥메트), 배, 포도즙, 배즙	13교구	까나리액젓, 수수전병, 호박죽, 영남돼지갈비, 톨카,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액세서리, 건강식품
7교구	복사용지, 새우젓, 멸치액젓, 신발, 옷	14교구	LG가전(컴퓨터 및 가전제품), 팝콘, 신사숙녀화, 행주, 가전제품, 부추애물전, 식당운영

사명자대회 발대식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오늘부터 50일간 기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2002 사명자대회 발대식을 오늘 찬양예배시간 중 갖는다. 오늘 발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코자 기도와 찬양으로 다짐하는 자리가 된다.

11월24일(주)까지 쉬임없이 계속되는 사명자 대회 기간 중에는 50일 24시간 연속 기도회와 다니엘 기도 그리고 주력부대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금요기도회, 사명자 특별 새벽기도회(11월11일 - 23일) 그리고 70인 전도대 전도활동 등이 계속된다.

우리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은혜 받는 사명자 대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목회자 신학세미나 정몽준 의원 강연

내일 10월7일 (월) 1교시

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일정에 3명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키로 한 바 있는 우리교회는 3명의 후보 가운데 정몽준 의원을 내일 초청하여 신앙과 애국을 주제로 60분간 강연을 듣고 30분간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목회자 세미나 등록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공개되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안문제를 후보들에게 질의 형식을 통해 교회가 원하는 방안을 풀게 된다. 이중윤 목사는 교계를 대표하여 질의를 할 예정이다.

내일-10월7일(월) 정몽준 의원의 강연은 1교시(오후 2시)에 시작되며 이중윤 목사의 시편 강해는 시간을 바꿔 정몽준 의원의 강연이 끝나고 난 후 2교시에 계속된다.

금주의 성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행:6:5)

Now Stephen, a man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did great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among the people. (Acts 6:5)

입시생을 위한 기도 결연회

고등부에서는 수능시험(11월6일)이 한달여 남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입시생들과 학부모, 교사, 기도결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 기도회를 갖는다.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분들의 빠짐없는 참여와 온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기도회는 601호실에서 있다.

9월 새가족환영회 - 오늘찬양예배시간 -

9월 중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갖는다.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기원, 노귀현, 정하라, 오혜정, 성기철, 김영기, 이현정, 김영빈, 배병이, 김상대, 김숙자, 박현수, 변영무, 전상택, 주동채, 김동진, 조신임, 윤성열, 유진아, 송광호, 서중화, 김정신, 서경학, 이영숙, 서찬주, 정미희, 이은희, 이정훈, 박효영, 박혜림, 고경자, 백재현, 윤석호, 박금실, 문옥희, 오경례, 김광용, 김현정, 신영희, 이경림, 서창호, 이주연, 박정일, 김명순, 이은보, 장성하, 마충운, 서중숙 (이상 48명)

10월중 행사 계획표

- 10. 1 (화) 남녀 전도회원 수련회
- 10. 6 (주) 사명자대회 발대식
새가족환영회
- 10. 7 (월) 목회자 신학세미나(6회차) - 대선후보강연
- 10. 9 (수) - 11(금) 2002 이웃돕기와 헌당을 위한 열린 바자
- 10.13 (주) 전도위원회, 서울 챔버 파이어 연주(찬양예배시)
- 10.14 (월) 목회자 세미나(7회차) - 대선후보강연
- 10.16 (수) 10월 학습-세례식
- 10.17 (목) 서울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성가제(서울교회)
- 10.18 (금) 교사교육 및 기도회
- 10.20 (주) 교구위원회
- 10.21 (월) 목회자 세미나(8회차)
- 10.27 (주)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
성경암송대회 예선-본선: 11월1일(금)
- 10.28 (월) 목회자 세미나(9회차)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3장 1 - 5절)

거리의 여인을 찾아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그에게는 하필이면 거리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하는 아픔이 생겼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세 아이를 낳았지만 다시 창녀의 굴로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 굴에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아내를 사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속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가 물위에 떠다니던 나뭇가지를 의지해 간신히 고도에 도착했습니다. 그 곳에는 오르니 철문이 하나 있었고 문에는 열쇠가 꽂힌 자물쇠가 달려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을 열고 철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철컹 닫히더니 열쇠가 떨어져 바다 속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생활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곳에서 빠져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죄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을 받아 지옥을 가야 할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마침내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속의 대사역을 이루신고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1. 값을 지불한 호세아

"내가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오"(2절).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창기와 같이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의미의 구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 가알과 고멜

구약에 '지불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속한다(redeem)'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을 때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다시 재산을 찾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회복이 안되지만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았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산을 다시 돌려주었을 때 빚을 갚아준 친척을 '고멜', 구속자(redeeme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아스가 롯의 남편에게 속했던 땅을 롯을 위해 사주는 행위를 '가알',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 값대로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며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구속의 은총을 받는 일이며, 구속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중운 목사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코페르

히브리어 '코페르'는 몸값을 지불하는 일, 배상금 혹은 속죄 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끌어내는 것, 창녀의 굴에 있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코페르'입니다.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이 소가 남의 집 밭에 들어가 식물을 다 뜯어먹거나 혹은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때 농부는 소를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죽은 사람의 집과 잘 함의를 하거나 법적으로 합당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또한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구속(redeem)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을 죽인 소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지만 주인이 대신 값을 지불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적은 죄들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결정적인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 값을 지불하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3) 루오

신약에 구속이라는 말을 '풀어준다(to loose)',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준다는 의미의 '루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에 묶여서 지옥에 던져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악에 묶여있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딤후 2:14).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값으로 지불된 것입니다(벧전 1:18-19).

언젠가 죽도록 되어있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에 변화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죄악의 사슬에 묶여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 값을 지불하신 사실을 믿고 구원함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일찍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분도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세상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2. 돌아온 고멜

고멜은 자기 남편을 두고 세상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은 섬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이 놀랍고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주셨습니다.

고멜의 인생은 떨어질대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배 밀창에 들어간 요나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건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멜과 같이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세상으로 따라가던 존재였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3절).

고멜을 다시 사온 호세아는 그녀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노예로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아내의 자리로 회복시킵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된 우리에게 음녀처럼 딴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산 우리에게 이것을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음행하는 자와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멜은 음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그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3.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5절).

모두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롬 11:5).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회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해야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멜이 호세아와의 결혼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므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자 대회가 갖는 의미



사명자 대회는 교회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50일 동안 계속되는 기도 운동이자 전도 운동으로 우리 교회만의 독특

하고도 은혜 넘치는 역사를 통해 생겨난 행사다. 사명자대회의 기원은 우리 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인 199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흠어졌던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시작하였고 교회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교회 창립예배를 드릴 때까지 매일 합심하여 기도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때부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그리고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창립을 위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회가 시작됐다.

1991년 10월 6일은 바로 그 첫 기도회가 있던 날이었다. 사실 이 날은 어느 누구도 사전에 기도회를 하겠다고 연락한 일이 없었음에도 무려 169명의 성도가 자발적으로 논현동 예배당으로 달려나왔다. 당시 급하게 건물만 빌린 논현동 예배당은 당분간 교회로 쓰기로 결정만 했을 뿐 의자도 강단도 없는 텅텅 빈 건물이었다. 그러나 연로한 권사들과 장로, 집사와 평신도 등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

기도회는 그로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50일간 계속됐다. 그리고 교회 창립을 위한 여러 준비도 똑같은 기간동안 긴박하게 진행돼 갔다. 절망 가운데서 말씀의 새로운 위로를 받은 이종운 목사도 성도들의 이 같은 기도회 소식과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어로 돌아와 뜨거운 환영 속에 서울교회 창립준비의 선두에 섰다.

이 목사의 귀국으로 창립을 위한 준비는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예배가 세워지고, 창립준비위원회가 증원되는 가하면, 다락방 모임과 남녀 전도회가 조직되고, 교회학교가 개설됐다.

인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불과 두 달도 안 돼 첫 기도회 때 모인 169명에서 무려 10배가 넘는 1,800여명을 넘어섰다. 남모를 헌신도 이어져 3천 평에 이르는 수양관 부지를 헌납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찬양대와 교사, 헌금위원, 안내위원에 이르기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구름 패처럼 일었다.

50일째 되는 날인 동시에 추수감사절인 1991년 11월 24일, 우리교회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창립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 50일의 의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의 의미를 따온 것이기도 했다. 즉 사명자 대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담대히 주님을 전파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가 겪었던 창립 예배 전 50일 동안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역동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구원을 실천 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기도 하다.

교회는 이 기간에 각 성도가 특별히 전도하길 원하는 사람, 즉 태신자의 명단을 교회에 제출하게 하고 태신자 전도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를 했다. 또 24시간 연속기도운동도 벌였는데 지난 98년의 경우, 40일 동안의 연속기도회에 연 2천명이 넘는 성도가 참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금요심야기도회, 특별새벽기도회 등 다양한 기도운동을 이 기간 동안 벌였다. 전도운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각 기관별로 노방전도와 축호전도, 찬양전도집회 등을 전개하였다. 우리 교회내 70인 전도대는 바로 이 사명자대회 기간에 만들어져 지난 99년부터 상설기구화한 것이다.

기도운동이요 전도운동인 사명자대회는 해가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점점 더 절실한 행사가 되어가고 있다. 새 예배당 시대를 맞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회와 전도에 동참할 것을 교회는 촉구하고 있다.



김민철(편집부)

은혜의 길로 이끈 COP

하태현 성도 (14교구)

지난 4월 새가족을 위한 한가족 축제 때 기도연주단(C.O.P) 모임을 구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모임은 6가정이 모여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모임이 몇 주 지속되다가 곧 흐지부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5개월간 꾸준히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을 통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을 큰 은혜로 여깁니다. 예전에는 나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임은 C.O.P를 이끄시는 권사님의 제안으로 기도모임 후 Q.T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저는

성경을 보다 더 자세히 읽게 되고 느낀 점을 말로 표현하므로 나 자신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구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신의 신앙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라면 모이고, 하라면 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진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회에 와서 이곳은 믿음의 기초를 닦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66권으로 결정되었는가? 교회와 국가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사도신경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처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때때로 아내에게 문제를 던지며 나의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교육을 받아왔지만 그것은 그리 체계적인 교육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잘 배웠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고민들은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거기에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찬송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의 지위와 빈부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믿음 안에서 나누고 편면할 수 있는 다락방 모임, 남녀선교회, C.O.P 모임 등 이런 소그룹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C.O.P모임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C.O.P 모임을 통해 기도의 훈련을 받아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나가서는 세계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 알고 암송합시다 오정식 목사

요한이서, 요한 삼서, 유다서는 10월 27일에 있을 성경암송대회의 범위이다.

요한이서

요한 이서는 그 전체 사상이 요한 일서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요한 일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어진다. 따라서 본 서신에서도 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간으로 성육신했음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적 이단을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정통 교회의 참된 가르침의 터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한 형제 된 성도들간에는 더욱 사랑으로 하나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본서신의 2대 주제는 이단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성도들간의 뜨거운 사랑이다.

요한 삼서

본 서신은 가이오에게 보내진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서신이다. 그 내용상, 초대교회 당시 복음의 전파자요 지도자인 순회 전도자들에게 대한 성도의 접대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나그네(순회전도자) 접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리를 행하는 자와 진리를 배척하는 자를 뚜렷하게 대조시킨 뒤, 성도는 나그네 접대를 통해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본서는 적은 분량이지만, 초대교회 당시 복음 전파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서신이다.

유다서

유다서 역시 당시 초대교회를 극도로 혼란케 했던 영지

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히 본서는 이단에 대한 전투적인 변증서라고 칭할 만큼,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가장 준엄하고 통렬하게 공박하고 있다. 저자는 일차적으로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은 패역한 자들을 예로 들어 거짓 교사들의 비도덕적이고 불순종한 죄악상을 철저히 공격한 후에, 나아가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의 터 위에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 이서, 요한 삼서, 유다서를 암송하는 것은 이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꼭 필요한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요” 김정란 집사(6교구)

우리교회는 교회의 설립 당시인 92년부터 줄곧 “모음과 나눔의 장” 혹은 “열린 바자”라는 이름의 바자를 1년에 한 두 번씩 열어 왔고 이제 올해에도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게 되는 이웃돕기와 헌당을 위한 열린 바자의 행사 준비에 많은 성도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그간의 우리의 바자회는 의례적인 교회행사가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성도들의 환경보전 운동에 동참이라는 의미 외에도, 수익금으로 새 예배당 건축이나 전도,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등 매년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고, 일일이 열거하기 부족할 정도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 왔다.

특히 97년 교구별로 1억 원 가량의 목표액을 정하고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끝에 토지나 중건, 귀금속류, 회원권을 제외하고도 7억 원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금이 마련되고, 설립 이래 10번째 바자인 2000년 바자회는 새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마지막 정성을 모아 10억 원을 작성, 8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금이 모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회는 그간의 바자회를 통해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회의 분위기가 새롭게 되었고 서울교회들



▶ 제 1회 모음과 나눔의 장 시작 테이프 컷팅 장면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곤 했다.

이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 전을 헌당하는 것이 올해 우리 바자회의 목적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온갖 정성과 기도로 준비되어진 행사라는 점과 특히 평소에 이웃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봉사를 못하던 성도들에게 이웃과 교회, 주님을 위해 봉사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푸짐한 먹거리와 식품류, 수준 높은 미술품,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가을 햇곡식과 수산물들은 물론 유명 가전제품과 기타 재활용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갖춘 이번 바자회 기

간에는 예년과는 달리 저녁 8시까지 판매시간을 늘려 주부들뿐 아니라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가족과 이웃의 손을 잡고 여유 있게 저렴한 가격의 생활용품을 푸짐하게 구입하기에는 안성맞춤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일체감과 화목한 분위기가 조성은 물론 전도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서울교회 열린바자가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통해 이웃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 전의 헌당을 이루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서울 챔버 콰이어 찬양의 시간

교회는 오는 10월 13일 찬양예배 시간 중 서울 챔버 콰이어의 찬양을 특별순서로 가지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로 하였다.

1997년 창단하여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되어 군부대, 교도소, 보육시설, 재활병원, 중, 고등학교 등 음악문화의 나눔을 필요로 하는 곳에 노래를 통하여 봉사하고 있는 서울 챔버 콰이어(Seoul Chamber Choir)는 1999년 2월에 피츠버그의 Shadyside Church, 워싱턴 D.C. 노스 캐롤라이나, 샌프란시스코, 모데스토, 프레즈노, 하와이를 순회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 결식 아동 돕기 및 북한 동포 돕기 기금을 마련하여 전달하였고, 동년 7월에는 미국 서부의 San Francisco, Los Angeles, San Diego 등의 도시에서 2차 미국순회공연을 가진바 있다.

한편 서울챔버콰이어에는 서울교회의 최원민 성도(테너), 김지현 성도(소프라노2), 이송선 성도(반주)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최정숙 권사(9교구)

막상 팬을 드니 어떻게 감사의 글을 옮겨야 할지 매우 떨립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후히 주시리라 믿으면서 부족하나마 적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많이 받아왔지만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뿐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하루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양쪽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은 것은 1997년 4월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몹시 아파서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25일 끝난 흥해작전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는 말씀과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사 58:8)의 말씀을 붙잡고 2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먼길을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아픈 다리를 끌고 주님 앞에 날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서 속설로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관절염을 깨끗이 치료해주셨습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번 체험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0일 대치동 소재 교회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전도협력과 친목을 의논한다. 11일 강남노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이사: 김명심집사(3교구)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가치마을 1002-616 (02)445-9471
박진홍집사 이화자집사(4교구)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양아파트 1-306 (02)595-2972

☎ 금주의 식사제공: 김태수 · 김은희 집사 가정 (치과병원 개원을 감사하며)

☎ 목회자세미나 간식 제공: 이영수 장로, 박정순 권사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2 사명자 대회와 열린 바자를 위하여
2. 목회자세미나 ·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살림경로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아시안 게임과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